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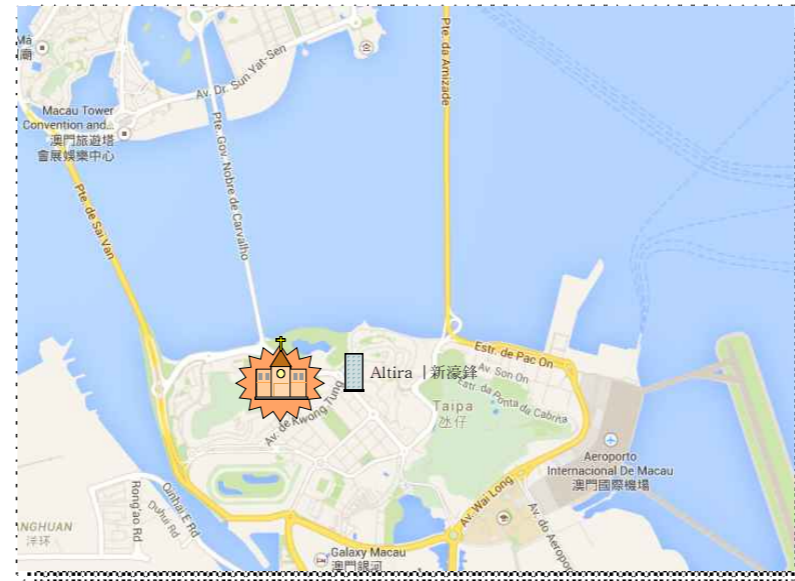
| 직 분 | 성 명 | 전화번호 | E-mail |
|-----|-------|------|--------------------|
| 목 사 | 조 한 | | sctsm@hotmail.com |
| 목 사 | 김 의 정 | | mkic@macau.ctm.net |
| 반주자 | | | |

예배시간

| | 시간 | 장소 |
|--------|-----------|----|
| 주일대예배 | 오전 11:00 | 본당 |
| 주일학교 | 주일오후 1:30 | 본당 |
| 금요 기도회 | 밤 8:00 | 본당 |

오시는 길

타이파 Altira 호텔 맞은편 Hung Fat 3동 4층
 氹仔 廣東大馬路 775 <鴻發花園> 第3座 4F-B/E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카오 한인교회**



Macau Korean Church

목사: 조 한 김 의 정

澳門 氹仔 廣東大馬路 鴻發花園 3座 4樓 B-E座
 Hung Fat Garden Bl. 3, 4 andar B-E, Taipa, Macau

TEL: +853 2885-5358 | <http://mkc.hanaset.org>

예배도움

1부 예배: 오전 11:00

인도: 김의정 목사

- 예배의 부름 조한 목사
- 찬양과 경배 다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 성 시 교 독 성시교독 12번 다함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 예 물 봉 헌 다함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 봉 헌 기 도 김의정 목사
- 찬 양 주기도문 다함께
- 성도의 교제 다함께
- 참회와 간구 말은이
-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24:13-27 인도자
Luke 24:13-27
- 특 별 찬 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말은이
- 설 교 낙심과 소망의 원인 조한 목사
- 결단의 기도 다함께
- 찬 양 주님나라 임할 때 까지 다함께
- 축 도 김의정 목사

금요 기도회

▶ 금요일 밤 8:00 인도 : 김의정 목사

- 찬양으로 다함께 찬 양 팀
- 성경봉독 김의정 목사
- 말 씀 김의정 목사
- 기도회 다 같 이

성시교독 12번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아꿀보다 더 달도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 ◆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 ◆ 매일 저녁 8시에 개인기도회와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13-27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